

中國 黑龍江省 朝鮮族의 服飾에 관한 研究

張 順 愛 · 金 鎮 玖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19세기 末 中國 黑龍江省으로 移住해간 朝鮮族의 服飾을 文化接變過程과 관련시켜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19세기 末 移住時期로부터 2002년까지이며 이 時期를 文化大革命 以前 時期, 文化大革命 時期, 改革開放 時期 등 3시기로 시대적 성격을 구분하여 19세기말~1965년, 1966년~1977년, 1978~2002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文化接變過程은 部分的 解體, 外來文化的 受容, 抵抗, 外來文化要素의 再解釋, 部分的 解體의 繼續, 再構成 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현지답사를 통한 실물자료, 사진, 주민면담에 의한 증언, 직접관찰, 문헌조사로 수집되었다.

中國 黑龍江省으로 移住해간 朝鮮族의 文化接變에 따른 服飾分析에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文化大革命 以前 時期 중국, 일본, 구소련문화와 각각 접하게 되는데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주로 일본문화를 受容하여 移住시기에 着用하였던 갓, 상투, 버선 등이 사라지고 남성복에서 검정의복, 중머리, 鴨舌帽(일본식군모), 계다 등이 受容되어 着用되었으며 여성복에서는 단발머리, 통치마, 세일러복이 受容되었다.

黑龍江 朝鮮族은 일제의 강제적인 문화동화정책에 抵抗하여 일본의 전통복인 和服을 着用하지 않고 朝鮮 固有의 服飾인 지고리, 바지, 배자, 두루마기, 치마를 日常服으로 着用하였다. 黑龍江 朝鮮族은 소수민족을 우대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중국공산당을 우호적으로 보고 그들의 服飾을 受容하였는데 남성복은 中山服, 양복, 하이칼라와 중국식 군모를 受容하였고 여성복은 旗袍(치파오)를 受容하였다. 남녀 모두 왕바신과 형겅신을 着用하였다. 또한 중국의 우방국이었던 구소련의 영향도 받았는데 겨울 코트와 털모자를 受容하여 着用하였다. 서양의 영향은 당시 중국이 이미 서양의 服飾을 受容하여 着用하고 있었기에 漢族으로부터 여성재킷, 스타킹, 구두, 파마 등을 受容하였다.

이 시기의 黑龍江省 朝鮮族은 外來服飾을 受容하여 着用하기도 하고 자기 固有의 傳統服飾도 다소 간직하면서 사회주의 대 가정의 당당한 一원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文化大革命 時期에는 중국공산당의 무산계급 세계관을 강조하면서 서양 자본주의 산물인 양복이 着用되지 않았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旗袍(치파오)가 着用되지 않았다. 중국의 영향으로 漢族의 襖가 着用되었으며 군복이 대량 着用되었고 毛澤東에 대한 숭배와 충성의 상징인 毛澤東 마크와 홍위병 완장이 着用되었다. 의복의 색은 주로 검색, 카키색, 청색이 사용되었다. 文化大革命 後期에 와서는 극단적인 획일화에서 탈피하여 남성복에서는 코트드로이 점퍼가 着用되었고 여성복에서는 플랫칼라의 재킷이 着用되었다. 이 시기에는 소수민족 우대정책

이 폐지되어 前 時期에 日常服으로 着用되던 韓服이 婚禮服으로만 着用이 되었다. 구소련과의 갈등으로 소련식 코트가 着用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服飾은 극히 단조롭고 획일화된 특색을 지니게 되었으며 색상이 어둡고 장식성은 거의 없었으며 양복着用은 금지되었고 민족복의 着用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改革開放 時期에 黑龍江省 朝鮮族은 전통 중국복식을 대량으로 受容하여 여성들은 旗袍(치파오)를 다시 着用하였고 중국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服飾의 다양한 품목들에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도 기쁨, 길조,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黑龍江省 朝鮮族은 주로 연변을 통하여 북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저고리 길이가 짧아졌고 직배레이며 주름치마를 着用하였다. 특히 무용복에서 북한의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저고리 소매를 좁게 하고 배래에 구슬을 달아 팔을 뻗을 때 구슬이 보이게 하였으며 혹으로 앞을 여미고 옷고름은 앞 중심선에 달아서 리본처럼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변형된 저고리를 着用하였다. 머리에선 리본이나 꽃을 달았다.

한국과 수교한 후 여성들은 한복을 많이 着用하였는데 색상이 다양하고 소재도 고급스러웠으며 치마는 A라인으로 풍성하였다. 조선전통을 회복하여 남자 환갑복에서는 저고리 바지, 조끼, 두루마기, 중절모가 着用되었고 어린이 돌복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한복이 着用되었고 복주머니, 장수살이 着用되었으며 여아는 글레를 쓰고 남자는 복건을 썼다.

러시아의 영향은 국경 무역이 발달하면서 文化大革命 時期에 끊어졌던 來往이 다시 이어지게 되어 복식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중절모와 모직 코트가 着用되었다.

중국 黑龍江省 朝鮮族은 중국에서의 오랜 정착생활로 중국인들의 문화들 受容하여 자기화하고 또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세계의 다양한 모드들을 受容하면서 자기 고유의 전통도 이어가는 3차원의 구조적 변혁을 겪고 있는데 日常服에서는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빠른 유행, 외제선호 등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婚禮服에서는 한복, 서양식 웨딩드레스, 중국식 슈트 등으로 而構成되었다.

黑龍江省에 거주하는 朝鮮族이 중국 黑龍江省으로 移住하여 일으킨 문화접변의 형식은 한 집단이 자신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지닌 다른 집단의 거주지로 옮겨가거나 문화를 전달받는 집단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는 경우이다. 거주국 민족인 漢族과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문화접변을 일으켰고 친략에 의한 일본과의 문화접변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변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원인으로 인접국인 러시아와도 문화접변을 일으켰는데 정치적 원인으로 文化大革命시기에는 중단되었다가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다시 문화접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같은 민족인 북한 또는 한국과의 문화접변은 다양한 道經을 거치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북한과는 연변을 통한 간접접촉과 무역 등을 통한 작은 집단이나 개인들 간의 접촉으로 문화접변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한국과의 문화접변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바 유학, 노무수출, 무역, 대중매체 등을 통한 본질적인 부분들 간의 접촉 또는 작은 집단간의 접촉내지 개인들 간의 접촉에 의해서 문화접변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문화접변의 다양성에 의하여 각 시기별로 복식의 변화과정도 달랐고 복식의 변화 양상도 다양하였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末 한반도에서 中國 黑龍江省으로 移住해간 黑龍江省 朝鮮族의 服飾에서 部分的 解體, 外來文化的 受容, 抵抗, 外來文化的 再解釋, 服飾의 再構成 등 文化接變 要素가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고 黑龍江省 朝鮮族 服飾은 이 文化接變過程

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한국 등과 같은 나라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영향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는바 文化接變은 服飾變化의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었다.

參考文獻

- 金迪東, 滿蒙風俗大觀, 東明社, 昭和 七年 十二月.
- 徐基述 主編 (1988). 徐明勛 副主編, 黑龍江朝鮮民族,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조룡호, 박문일 주필 (1997). 21세기로邁進하는 中國朝鮮族 발전방략연구, 료녕민족출판사.
- 주첸봉, 신동기 옮김 (1999). 주룽지, 생각의 나무.
- 한상복 외 2인 (1995). 文化人類學, 韓國放送通信대학교 출판부.
- 다케요시지로오. 나카노겐지, 김양수 옮김 (1999). 오늘의 中國을 읽는 27가지 테마, 자작나무.
- 平野健一郎 (2000). 國際文化論, 東京大學校 出版部.
- "民族誌", 黑龍江省民族事務委員會 編.
- Malinowski, B. (1945).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New Haven.
- Hughes, C. C. (1960). *An Eskimo Village in the Modern, World*. NewYork: Cornell Univ.
- Kluckhohn, Clyde and Kelly, W. H. (1945). "The Concept of Culture," in R.Linton, ed,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
-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London : John Murray.
- Ortiz, F. (1947). *Cuban Counterpoint: Tobacco and Sugar*, New Yor.
- Craik, Jennifer (1994). *The Face of Fashion*, London : Routledge.
- Herskovits, M. J. (1938). *Acculturation, The Study of Culture Contact*, New York.
- Herskovits (1960). *Man and His Works*, New York.
- Linton, R. (1940). *Acculturation in Seven American Indian Tribes*, New York.
- Redfield, R. Linton, R. and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 38.
- Jha, S. (1990). "An Ethnographic Inquiry into Adjustment of Asian Indian Wives in Ames, Iowa,"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